

ICOH 2022 참석기

3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2022년 새해 첫 교육은 국제학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맡은 업무와 교육을 작년보다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본부 대외홍보팀의 국제산업보건학회 직원 등록 지원에 대한 공문을 열람하게 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도 직원들이 더 넓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해 올해 좋은 경험과 배움을 얻을 기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 참석이 승인 되었다.

처음 ICOH 2022를 참석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학회 참석은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까지 참석했던 해외학회는 ANOH-Con2016 (Asian Network of Occupational Hygiene)과 한중일 산업보건 학술 집담회(27차-2017, 28차-2018)로 3번 정도였다. 그 당시 참석했던 학회들은 포스터 발표를 하고 다양한 세션을 통해 아시아권 산업보건의 흐름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위생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에 이번 ICOH 2022도 기대를 갖고 참석하였다.



김준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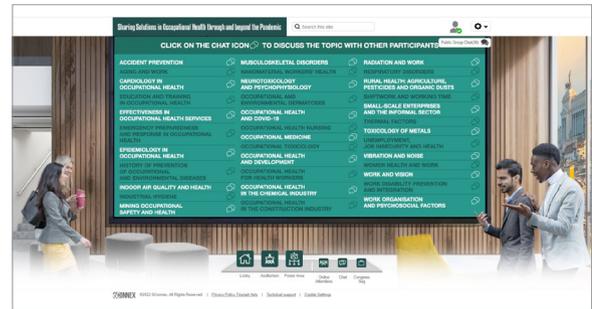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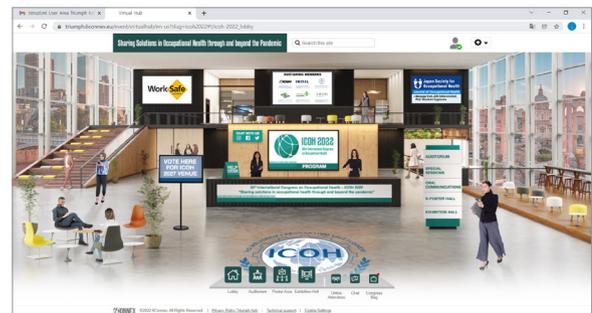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Founded in 1906 as Permanent Commission

ICOH 2022 비대면 학회

Virtual platform으로 진행된 학회는 2월 6일 일요일 오후 7시(한국시간)에 개회식부터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WHO, ILO 등 국제기구의 축사와 시상으로 ICOH 2022의 개최를 알렸다.

Virtual platform으로 참석한 학회에서는 Special Sessions과 E-Poster Hall을 통해서 산업보건의 각 분야 별 연구내용을 볼 수 있었으며, 36개의 포스터 발표 주제 중 전공 분야인 산업위생에서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방법, 각종 업종의 유해인자 노출 특성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간으로 진행된 Plenary Session(11회)과 Semi-plenary Session(24회)에서는 직업성 암, 산업보건, 정신건강, 직업성 질환 등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과 사회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폐회식은 5일 동안 진행되었던 학회를 정리하는 행사였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Sharing Solutions In Occupational Health Though Aad Beyond The Pandemic'으로 산업보건에서 세계적인 전염병을 넘어설 해결책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을 알리고, 2024년 모로코에서 열리는

34회 국제산업보건학회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기약하였다.

COVID-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학회가 이루어지기에는 모두가 위험할 수 있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였고 학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이라는 접근의 편의성으로 학회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회사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얻고 참석하게 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국제산업보건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3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2022가 2022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ICOH는 1906년 스위스 터널 사고를 계기로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산업보건에 관하여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가를 하는 공식 협력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개최되었다.